

테크놀로지를 응용한 하이브리드와 패션

양 취 경[†] · 오 나 령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 서 론

현대인이 살아가는 정보시대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모든 서비스를 같은 네트워크로 통합된 기기를 사용해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방송산업, 컴퓨터산업, 통신산업은 상호 융합함으로써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분이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결합하는 것을 잡종, 혼성물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hybrid)라고 한다. 21세기의 다양한 양식의 혼재로 인해 상품과 사용자간에 인터랙티브(interactivity)한 개념이 도입되어 개개인의 취향이 존중된 제품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가능해진 인터랙티브한 제품들은 사용자의 행동패턴과 물리적, 신체적 특징, 심리적인 변화, 정보처리에 필요한 인지과정 등 인간과 제품이 상호작용을 이루는 인터페이스(interface) 개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¹⁾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정보사회에서 보여지는 테크놀로지 제품과 미술에서 보여지는 하이브리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경향을 역사적 양식, 지역적 요소, 문화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현대패션을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는 원래 피터 킨(Peter Keen)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마이클 얼(Michael Earl)에 의해 정의되어졌다.²⁾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연구의 결과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저공해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엔진 기술과 전기 자동차 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이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FGV-2 (Future Green Vehicle : 미래환경친화 자동차)가 개발되었다³⁾. 컴팩에서 출시한 듀얼 월드스(dual worlds)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인간공학과 랩탑의 휴대성을 처음으로 결합시켜 시도한 제품이다. 또한 마쓰시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실의 프로토타입 모델의 커뮤니케이션 기기는 문자인식용 펜 디지털이저, 소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기능들이 하나로 되어 키보드와 프린터의 기능을 과감히 흡수하였다.

[†]교신저자 E-mail kyang@sungshin.ac.kr

1) 임영자, 한운수,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 51권 5호(2001), p 114

2) David Skyrme, "The Hybrid Manager," <http://www.skyrme.com/insights/6hybrid.htm>

3) <http://www.hyundai-motor.com/index.html>

이러한 조류에 따라 현대경제 연구원에서도 “제품혁신을 위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연구되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 하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제품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란 프로세스, 기술, 시장, 계량, 속도 그리고 학습전략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제품 혁신 접근법을 말한다.⁴⁾

즉 하이브리드 접근법은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가 정의하는 ‘레고 문명’을 이루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명은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어 ‘지구촌화(globalization)’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현대 미술에서 하이브리드 경향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조형개념의 다변화로 어떤 특정경향이나 양식,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출되며 다원화를 통한 여러 방향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20세기 이후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기존 장르구분의 속박에서 벗어나 혼합매체의 사용이나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새로운 공간의 인식과 이미지 출현으로 현대미술은 탈장르화 경향을 띄게 되며, 오브제의 변증과 확대를 통한 거대성의 일면을 제시하며 첨단 과학매체를 통한 가변성과 더불어 행위의 순수성을 환경과 접목시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작가들은 각자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지적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개별적으로 선택,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과 현재, 실제와 가상, 순수와 잡종 등이 공존하는 혼돈과 동요 속에서 그들만의 ‘창’을 통하여 현대 문화를 체험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고 재구축하며 ‘새로운 그림’을 구상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작가들의 작업 태도와 방식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 형태이다.⁵⁾

이와 같은 개념은 2000년 2월 아트선재센터에서 기획한 『MixMax』 전의 개념과 일맥 상통한다고 하겠다. 유럽과 아시아 작가 16명의 에너지와 역량 그리고 혼성적 문화를 확장된 차원의 ‘믹스’ 개념에서 다루고자 했으며, 아트와 패션, 음악, 디자인, 공예, 영화등 다양한 장르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서로 간의 이질적 사고체계와 그에 따른 상호반응들 사이에서 교류의 조건을 체험하고, 유동적이고 혼성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전복시키고 상상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색다른 세계관을 제시한다.

다양한 예술 양식의 혼재 경향을 보이는 21세기의 현대패션에서 하이브리드 경향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영화, 비디오, 음악, 회화 등에서와 같이 다양한 이질적 스타일을 동격의 가치로 혼합하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절충된 스타일을 이루었다. 즉,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는 다른 패션 감각의 공존을 말하는 것으로 크로스오버(crossover)·융해·융화·합병이라는 의미의 퓨전(fusion)과도 같이 사용된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는 특히 첨단 기술의 소재를 조합하여 미래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바이오 테크놀로지(biotechnology)가 주목되는 시대를 반영하여 생겨난 용어이다.⁶⁾

패션에서도 1980년에 들어와서 다원적인 경향이 강해져 The Face지가 80년대의 빠른 스타

4) 권오영 “제품혁신을 위한 하이브리드 접근법” 『Prime Business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1권 74호, (1999), pp 1-2

5) John A Walker, 정진국 역,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열화당, 1997), p 104

6) 『월간미술』, 2002년 2월, p. 104

7) <http://artsonje.org/asc/>

8) 라사라 교육개발원 편, 「복식사전」, 라사라, (1992), p 369.

일의 교체를 지적한 것처럼 복식의 다원성은 다른 사람의 복식 문화권에 관심을 두게 된 '탈 중심화' 현상으로 반영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이었던 과거 복식이 '자유표현의 장' 으로서의 역할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이것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그 스타일 간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재치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의 혼합은 '미/추', '빈/부', '정숙성/비정숙성', '여성성/남성성', '정통성/현대성' 등과 같이 상호 소외의 상태를 유지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와 같은 개념들이 상호 소외 없이 해체된다.¹⁰⁾

3. 결론

현대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¹¹⁾하였다.

첫째,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모티브들을 단편화하여 입체적인 형태를 통한 내적인 분절과 통합개념을 이끌어 내는 역사적 양식의 하이브리드 패션디자인 경향은 인간 중심적인 시대적 사고를 통해 인간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표현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20세기 과학의 발전으로 네트워크화가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과 탈이념화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유행의 공유 폭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지역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은 기존의 다양한 경계가 무너지고 새롭게 창출된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지는 다원주의적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셋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요소 등이 조합, 절충되어 새로운 스타일이 혼재하는 문화적 전환(culture tune)을 이끄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유품민 사회의 수평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상, 하위 문화와 성의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패션 디자인 경향으로 각각의 문화적 요소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됨으로써 중층적이고 다면체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권, p. 380.
- 라사라 교육개발원 편 (1992). 「복식사전」. 라사라. p. 369.
- 문화와 사회 연구회 (1994). 「현대와 탈 현대」. 사회문화 연구소. p.139.
- 임영자, 한윤숙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 51권 5호, p. 114.
- 임영자, 한윤숙 (2001). *Op cit.*, p. 132.
- 「월간미술」. (2002년 2월). p. 104.
- David Skyrme. 'The Hybrid Manager', <http://www.skyrme.com/insights/6hybrid.htm>
<http://artsonje.org/asc/>
- John A Walker, 정진국 역 (1997).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p. 104.

9)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권 (1998), p. 380

10) 문화와 사회 연구회, 「현대와 탈 현대」, 사회문화 연구소, (1994), p. 139

11) 임영자, 한윤숙, *Op. cit.*, p. 132.